

상과 양상의 상호관계: 러시아어의 경우*

이 인 영 (서울대학교)

김 정 일 (서울대학교)

홍 택 규 (서울대학교)

Lee, In Young, Kim, Jung Il, and Hong, Taek Gyu. (2002). Interrelation between aspect and modality in Russian. *Language Research* 38(3), 969-986.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 between aspect and modality in Russian.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use of aspect in "irreal" conditional sentences and imperative sentences, which can be counted as the ideal types of marked moods in Russian.

Conditional sentences are designed to show (sequential and/or logical) causal relation between the two propositions, i.e. between the proposition in the protasis and the proposition in the apodosis. Since causal relation often implies temporal sequentiality, temporal sequentiality, in general, is highly correlated with perfective aspect. However, when the speaker has an intention to weaken the assertion of causality, he may substitute imperfective aspect for perfective.

In imperative sentences where interpersonal function of communication is activated, substitution of imperfective aspect for perfective also assumes the function of weakening the demand for the termination of action. In imperative sentences the weakening effect minimizes the distance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and serves as the means of expressing speaker's intimacy and politeness toward the hearer.

We can conclude that in both sentence types speaker's pragmatic intention serves as a motivation for the aspectual change.

Key words: conditional sentences, imperative sentences, mood, modality, aspect, casuality, politeness, intimacy, weakening effect

1. 서 론

상은 행위의 시간을 발화시점과 관련시키는 시제와는 달리 시간축 상에서 행위 자체의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시제는 시간축 상에서의 화자의 위상에 따라 가변적인 반면, 상은 시간축상에서의 화자의 위상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축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쓰여진 논문임.

상에서 행위의 면모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가는 결국 화자의 의도 혹은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개입은 시제에서보다 상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¹⁾ 예컨대,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 종료는 완료상(이후 예문에서는 pf로 표기)으로 표현되지만 화자가 행위의 종료정보보다 행위의 주체나 행위가 이루어진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에는 불완료상(이후 예문에서는 impf로 표기)이 사용될 수 있다.²⁾ 화자의 의도에 의해 소위 디폴트적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양상의 문법범주인 서법도 예외가 아니다. 상황이 준거세계와의 비교에서 비현실로 인식되면 조건법이, 행위의 필요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되면 명령법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직설법이 가정이나 명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명령에 가정법이, 혹은 가정에 명령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³⁾

상이나 서법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제도) 화자의 의도에 의해 일종의 조작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상당부분 연구된 바 있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범주들이 보이는 상관성이다. 예컨대, 이미 종료된 상황은 직설법과거 완료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이미 종료된 상황은 전형적으로 발화시보다 먼저 종결된 사실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상과 시제의 연관성 혹은 시제의 양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과 양상간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⁴⁾ 이를 위해 유표적 서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조건문 — 특히

- 1) 물론 이 말이 시제가 항상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지라도 화자가 보기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일 경우 현재시제나 과거시제가 사용될 수 있다.
- 2) (1) Kto podovljaj^{impf} vosstanie? Vy? Ja!
누가 반란을 진압했죠? 당신인가요? 저라고요!
- (2) Kto u vas grupporg? sprašival Poslavlev.
Vasilenku **vybiraj**^{impf}
당신들 중 누가 지도자죠? 파슬라블레프가 물었다.
바실리를 뽑았습니다.
- (3) V ètoj pornternoj ja obdumyval svoju dissertaciju i napisal pervoe ljubovnoe pišimo k Vere. **Pisal**^{impf} karandašom.
이 맥주집에서 나는 내 논문에 대해 구상을 했고, 베라에게 첫 연애편지를 썼다. 연필로 (편지를) 썼다.
(Forsyth, 1970, pp. 84-87)
예문 (1)은 행위의 주체에, (2)는 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주요 참여자에, (3)은 행위가 수행된 방식에 초점이 놓여지는 경우로서, 모두 불완료상이 사용되었다.
- 3) 직설법은 흔히 명령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Molčat!” ‘조용히 해라’), kak budto, slovno 등의 도움으로 가정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slovnno on znal” ‘그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명령법도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Ne brosaj dubinki i na tužku, a to deduška rasserditsja ‘방망이를 구를위로 던지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 화내실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법이 가벼운 명령을 나타내기도 한다(“Ja xotel by pit” ‘나는 마시고 싶다’ → ‘마실 것 좀 가져다 주겠니?’).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이인영(1997), Palmer(1986) 등을 보라.
- 4) 상과 시제의 연관성 혹은 시제의 양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Forsyth(1970), Thelin(1990), 이인영(1997) 등을 보라.

가장 전형적 조건문이라 할 수 있는 비현실적 조건문 — 및 명령문에서 상의 사용이 초래하는 효과를 상이 문법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있는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비현실적 조건문에서의 상

2.1. 비현실성과 불완료상

상이 현실성/비현실성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대립을 담화차원에서 분석한 Hopper(1982, pp. 214-216)에 의하면, 완료상은 서사(narrative)의 진행을 나타내는 전경(foreground)의 역할을 담당하고, 불완료상은 서사의 진행이 지체되는 대신 묘사나 평가의 기능을 하는 배경(background)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에 따르면 완료상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기술하므로 현실계와 연결되는 반면, 불완료상은 주관적 평가나 잠재적인 진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현실계와 상응관계를 보일 수 있다.

불완료상 \approx 비현실계 \approx 배경이라는 Hopper의 주장은 단순한 도식화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와 동일시한데 기인한다. 대부분의 서구어들의 과거시제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각각 아오리스트 및 임퍼펙트에 상응하는 것이 사실이나 교회 슬라브어, 고대 러시아어, 현대 불가리아어 등에서 그것들은 별개의 범주로 공존하고 있다. 현대 러시아어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고대러시아어의 아오리스트는 대부분 완료상으로, 임퍼펙트는 대부분 불완료상으로 흡수되긴 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대 러시아어에서 불완료상은 때에 따라서는 아오리스트적 의미를 띠기도 한다.⁵⁾ 완료상, 불완료상, 아오리스트, 임퍼펙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Hopper가 말하는 서사의 진행이 아오리스트에 의해, 서사의 지체는 임퍼펙트에 의해 표현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⁶⁾ 엄격한 의미에서 서사의 진행이 지체되는 배경의 기능은 불완료상이라기 보다는 임퍼펙트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접어두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불완료상이 비현실성과 상관성을 보인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인다.

Fleischman(1995, pp. 520-523)에 의하면 비현실성은 환상, 꿈, 가장게임(make-believe game)과 같은 비현실적 텍스트나, 자유간접진술과 같은 잠재의식의 표현,

5) Isačenko(1968), Bondarko(1971), Lomov(1975) 등은 일반사실적 의미를 가진 러시아어 불완료상을 아오리스트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와의 유관성을 가지는 완료상이 퍼펙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일반사실적 의미를 지닌 불완료상은 현재와의 유리성(razobščennost')을 보이며 퍼펙트와는 대립적인 아오리스트적 성격을 띤다.

6) 이 점에 대해서는 Lunt(1974, p. 137) 및 이인영(1985)을 참고하라.

조건과 같은 가설적인 표현 등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술한다.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 상황이나, 가설적 상황 등은 상황의 실현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상황을 시각화하여 그 전개과정을 펼쳐 보이는 데 비중을 두게 된다.7) 따라서 이 경우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불완료상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Galton(1976), James(1982), Palmer(1986) 등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2.2. 러시아어 비현실적 조건문에서의 상

이상의 견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주장은 기술되는 상황이 사실적일수록 완료상이 선호되고, 상황의 현실성이 낮을수록 불완료상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비현실적 조건문에서는 불완료상이 선호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자들이 러시아어에서 상황의 현실성이 극히 낮은 비현실적 조건문을 조사한 결과, 표현되는 상황의 특성상 불완료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상태, 존재, 부정, 반복 등의 표현을 제외하고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완료상이 좀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들이 A. Marinina의 소설 *Sed'maja žertva*(1999), *Illjuzija Grexa*(2001)와, 시간주간지 *Argument i fakty*(2002년 2월-5월호) 등에 등장하는 총 212개의 비현실적 조건문에서의 상의 쓰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비현실적인 조건문에서 사용된 상의 유형별 분포8)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구 성	조건절: 불완료상 주 절: 완료상	조건절: 완료상 주 절: 완료상	조건절: 불완료상 주 절: 불완료상	조건절: 완료상 주 절: 불완료상
빈 도	61	114	21	15
비 율	29%	54%	10%	7%

조사의 결과 비현실적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에서나 주절에서 완료상이 사용된 경우가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건절 61%, 주절: 83%). 그렇다면 왜 러시아어 비현실적 조건문에서는 완료상이 선호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조건문의 특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건문은 대안적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들간의 가능한

7) 비현실적 텍스트에서의 불완료상에 대한 Fleischman(1995)의 설명은 “역사적 현재”를 연상시킨다. “역사적 현재”는 상황의 생생한 시각화를 위해 상황의 진행을 회생시킨다. “역사적 현재”의 유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의 설명은 비현실적 맥락에서 불완료상의 사용도 유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8) 부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완료상 시제가 선호되는 러시아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현실적 조건문 중 부정어 ne가 불완료상과 함께 등장하는 예문들은 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상호관계를 상상하며, 만일 그 상호관계가 달라진다면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추론하는 인간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Ferguson et al. 1986, p. 3). 대안적 상황은 매우 다양해서 비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다. 비현실적인 조건문은 대안적 상황이 비현실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건문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두 상황을 표현하는 두 개의 명제로 이루어지며, 두 명제간에는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인과성이 드러나게 된다.⁹⁾ 현실 속에서 두 상황 사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과성이 조건문을 통해 재현되기도 하고, 화자의 사고 작용에 의해 두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나 조건문을 통해 구축되기도 한다.¹⁰⁾ 현대 러시아어에서 두 상황간의 인과성은 많은 경우 시간적 순차성을 함축하며, 시간적 순차성은 대개 행위의 종결을 전제하므로 완료상이 선호되는 결과를 보인다.¹¹⁾ 그러나 *byt*('be'), *imet*('have'), *znat*('know'), *xotet*('want'), *iskat*('look for')와 같이 어휘의미상 [+상태] [+지속]일 경우 일반적인 상의 사용원칙에 따라 불완료상이 사용된다.

- (2) *Esli by on iskali^{mpf} legkix putej, to on uže točno v rozyske by ne rabotal.*

‘만일 그가 쉬운 길을 찾았다면, 그는 이미 틀림없이 형사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Sed'maja žertva*, 1999, p. 181)

보다 흥미로운 경우는 어휘의미상 상태나 지속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반복이 아닌 이상 불완료상을 사용할 수 없는 달성동사가 불완료상의 형태로 사용된 다음의 예를 보라.

-
- 9) 조건문에서의 (시간적, 논리적) 인과성의 문제는 Traugott(1985), Xrakovskij(1986), Johnson-Laird(1986), Haiman(1986), Auwera(1986) Dancygier(1998) 등을 참조하라.
- 10) (1) *Esli by ne bylo atmosfery, zemlja prevratilas' by v carstvo bezmol'vija.*
‘만일 대기가 없다면, 지구는 침묵의 왕국으로 바뀔 것이다.’
(Kul'kova, 1992, p. 24)
- (2) *My by zakončil remont, esli by ty otkazalsja ot zavtrašnei poezdki.*
‘우리는 수리를 마칠 수 있을거야. 만일 네가 내일 여행을 포기한다면.’
(Švedova, 1982, p. 565)
- (1)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실 속에서 두 상황 사이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인과성이 조건문을 통해 재현되는 경우이고, (2)는 화자의 사고 작용에 의해 두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 조건문을 통해 구축되는 경우이다.
- 11) 러시아어 비현실적 조건문의 전형적인 표지인 *by*가 완료상 아오리스트 형태로부터 유래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 (3) Deistvitel'nyj xod: 24. Le1-e3¹²⁾
 Ošibočnaja ideja...Bolee svobodnuju igru belye **polučali**^{impf}
 prodolžaja 24. 25. 26.
 '실제 경로: 24. Le1-e3'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24, 25. 26으로 갔더라면 백이 보다 자유롭게
 경기를 풀어 갔었을텐데.'
 (Restan, 1989, p. 91)

- (4) Deistvitel'nyj xod: 25. Ke4-g5
 Po-vidimomu, 25. F4 **davalo**^{impf} vse osnovainja rassčityvat' na
 pobedu.
 '실제 경로: 25. Ke4-g5'
 '(제가) 보기엔 25, F4로 두었다면 승리를 예견할 만한 모든 근거를 제공
 해 주었을텐데요.'
 (Restan, 1989, p. 92)

polučat' '받다' 나 davat' '주다'는 모두 달성동사, 즉 행위의 지속과정 없이 결
 과만을 보이는 어휘의미를 가지는 동사군에 속한다.

전형적인 달성동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완료상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예 (5)도 예 (3), (4)와 함께 묶어 생각해 볼 수 있다.¹³⁾

- (5) Esli by odin iz nas **umiral**^{impf}, a drugie net, umirat' bylo by
 kraine dosadno - usmexnulas' babuška.
 '만일 우리 중의 하나는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면, 죽는다는
 것이 끔찍하게 화가 났겠지. 노파가 씩씩하게 웃었다.'
 (*Illuzija Grexa*, 2001, p. 202)

예문 (5)에 등장하는 “죽다(umirat')”동사는 결국은 반드시 종결될 수 밖에 없는,
 혹은 종결을 향해 가는 어휘의미를 가진다.¹⁴⁾ 따라서 다수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이
 상 불완료상의 사용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12) 이 예문은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by가 생략된 예외적인 경우임을 Restan(1989)은 지적하고 있다.

13) 예문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예문 (3)-(5)는 모두 화자가 상황의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
 고 있는 경우로 한한다. 예문 (3)과 (4)는 '백'과 '그들'이 이미 승리한 것을 화자가 알고 있는 맥락에
 서 사용된 경우이며, (5)는 '우리중 하나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화자가 알고 있는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
 로 한한다.

14) “죽어가고 있다”는 죽음을 향해 가는 단일 방향성만을 가질 뿐이다. “On umiral i nakonec umer.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죽었다.’”는 가능하지만 “*On umiral no ne umer. ‘그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불가능하다.

위의 예 (3), (4), (5)를 인과문으로 전환시킨 다음의 구문들과 비교해보라.

(3') Bolee svobodnuju igru belye **polučili**^{pf}, potomu što oni **prodolžili**^{pf}
24. 25. 26.

‘백은 보다 자유롭게 경기를 풀어갔다. 그들이 24, 25, 26으로 계속해서 두었기 때문이다.’

(4') Oni ispolzovali xod 25. f4. Èto **dalo**^{pf} vse osnovainja rassčityvat'
na pobedu.

‘그들은 25, f4의 수를 두었다. 그것이 승리를 예견할 만한 모든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5) Umirat' bylo kraine dosadno, potomu što odin iz nas **umer**^{pf}
a drugie net. - usmexnulas' babuška.

‘죽는다는 데에 매우 화가 났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하나는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 노파가 씩씩하게 웃었다.’

예문 (3), (4), (5)를 인과문인 (3'), (4'), (5')로 전환시킬 경우 주절에 표현된 상황과 종속절에 사용된 상황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제시되며, 이 경우 불완료상의 사용은 매우 어색하다. 그렇다면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불완료상이 사용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서술문 대신 가설성이 높은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대안세계의 구축을 통해 일종의 도피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기보다는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대안적 세계에서는 그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을 여지가 생긴다. 즉 화자는 현실상황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키거나 혹은 청자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인과문에서는 두 명제가 사실로 진술됨으로써 두 명제간의 인과성이 단언된다고 한다면, 조건문의 경우에는 두 명제간의 인과성이 다소 약화된 형태로 단언된다. 위의 인과문을 다시 조건문으로 바꾸어 볼 경우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 Deistvitel'nyj xod: 24. Le1-e3¹⁵)

Ošibočnaja ideja...Bolee svobodnuju igru belie **polučili**^{pf} (by)
prodolžaja 24. 25. 26.

15) 이 예문은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by가 생략된 예외적인 경우임을 Restan(1989)은 지적하고 있다.

(4^m) Deistvitel'nyj xod: 25. Ke4-g5
Po-vidimomu, 25. F4 **dalo**^{pf} (by) vse osnovainja rassčityvat' na pobedu.

(5^m) Esli by odin iz nas **umer**^{pf}, a drugie net, umirat' bylo by kraine dosadno - usmexnulas' babuška.

(3^r), (4^r), (5^r)는 원인절에 표현된 상황과 결과절에 표현된 상황사이에 현실 내에서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단언하고 있는 반면에, (3^m), (4^m), (5^m)에서 이러한 인과관계는 다소 약화된 단언으로 표현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청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약화의 기능은 상황을 현실이 아닌 가설적 상황 속에 배치시키는 구문적 특징에 기인한다. (3^m), (4^m), (5^m)가 인과문을 조건문으로 구문적 특징만을 변경시킨다면, (3), (4), (5)는 불완료상으로의 교체를 통해 조건문이 일으킨 약화효과를 배가시킨다. 불완료상의 사용은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인과관계에 대한 단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에 대한 화자의 책임감을 경감시키며 이는 예외바름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완료상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러시아어에서 종료성에 대한 불완료상의 무표적 특징에 기인한다. 즉, 불완료상의 사용은 행위의 종료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과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를 초래한다. 러시아에서 불완료상은 종료되지 않은 상황(즉, 지속이나 진행)뿐만 아니라 종료된 상황의 표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Kto ubiral^{mpf} segodnja komnatu? ‘누가 오늘 방을 치웠니’”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종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관심이 행위자에게 집중될 경우 불완료상이 사용된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어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완료상을 대체해 사용되는 불완료상은 조건문이 가지는 인과성을 의도적으로 완화 혹은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2.1에서 언급된 불완료상과 비현실성간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들과 일맥 상통한다. 얼핏 생각하면, 조건문은 비현실적인 맥락에 속하는데도 완료상이 선호된다는 점에서 2.1에서의 주장과는 상치되어 보인다. 하지만 2.1의 주장은 텍스트 혹은 담화차원에서 비현실적 맥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건문은 텍스트 차원에서 보자면 비현실적 맥락을 형성하지만 문장 내적으로는 두 명제간의 인과관계를 보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많은 경우 완료상에 의해 뒷받침된다. 비현실적인 조건문에서 완료상이 사용되는 경우 문장차원에서의 상의 사용이 텍스트 차원에서의 상의 사용을 압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비현실적 조건문은 문장 내 두 명제 사이에서는 인과성을 보이되, 비현실적 조건문 자체가 가지는 비현실성으로 인해 인과문에 비해 약화된 인과성을 가지며, 완료상을 대치하는 불완료상은 인과성의 약화를 한층 더 가속화시킨다. 이 때 불완료상이 가지는 약화의 효과는 면책이나 겸손이라는 의도에 의해 유발된다.

3. 명령문에서의 상

명령문은 이미 발생한, 혹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언어적으로 재현한다기보다는, 참여자들간의 대면적(interpersonal) 소통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명령문은 인칭, 시제, 레지스터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 평서문과는 다른 면모를 가진다. 명령문에서의 상의 사용이 가지는 독특한 양상적 기능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명령문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명령문에서 상의 사용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기존의 연구

명령문 내에서의 상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대략 상의 선택이 요청, 충고, 명령, 요구, 제안 등의 언표내적 행위의 유형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Xrakovskij, 1988; Lehman, 1989; Padučeva, 1992, 1996 등)와 의무양상(deontic modality) 및 진리가능양상(alethic modality)의 표현과 관련된 상의 역할에 관한 연구(Durst-Andersen, 1992, 1995, 1997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요청과 충고에는 완료상이, 허가나 예외바른 제안에는 불완료상이 사용된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Hassman (1986, p. 25)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위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문에서도 쉽게 드러나듯이, 예문 (6-a), (6-b)와 같은 요청과 (6-c)와 같은 충고의 화행에도 충분히 불완료상이 사용될 수 있다.

(6-a) **Vozvraščajsja**^{impf} skoree!

‘좀더 빨리 돌아와’

(6-b) **Priodi**^{impf} segodnja domoj poran’šel!

‘오늘은 집으로 좀더 일찍 와’

(6-c) Ja dumal, kak vam postupit’? Znaete čto, **soglašajtes**^{impf}, poezžajte na novoe mesto.

‘나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생각해봤어요. 새로운 직위로 옮기는 데 동의하세요’

(Hassman, 1986, p. 25)

16)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Padučeva(199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화자의 화행이 요청이 되기 위해서는 화자는 자신의 화행이 “그 자체로서 암시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상황에 의한 행위의 주어집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불완료상은 사용될 수 없다. 유사한 방식으로, 그녀는 화자가 충고의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즉, “상황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불완료상은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적 접근은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선택이 각각 허용, 금지, 의무, 혹은 의무의 취소 등을 표현하는 의무양상(deontic modality)과 (내적) 필요나 불필요 뿐만 아니라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진리가능양상(alethic modality)의 표현과 깊게 관련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Durst-Andersen(1997, pp. 85-86)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소위 ‘주인-손님 상황’의 경우처럼, (화자가 판단하기에) 청자(손님)가 화자(주인)와 상호협력적이고 (그리고 청자 자신이 해당 행위의 수행으로 인해 유도되는 결과적 상태를 원하지만) 감히 그 행위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화자는 아래의 예문 (7)처럼 불완료상을 사용하여 허락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 (7) **Sadites^{impf}**, požalujsta!
‘앉으세요!’

또한, 소위 ‘아버지-아이 상황’의 경우처럼, 청자(아이)가 화자(아버지)와 상호협력적이지 않으며, (예를 들어, 청자 자신이 ‘결과적 상태’를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화자는 아래의 예문 (8)처럼 불완료상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 (8) **Vstavaj^{impf}** žel!
‘일어 서(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Durst-Andersen은 (화자가 판단하기에) 청자가 화자와 상호협력적이며, 화자의 의향과 일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주어진 결과적 상태가 가능하다는 언급만으로도 청자가 그의 바램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화자는 예문 (9)처럼 완료상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9) **Dajte^{pf}** mne, požalujsta, vot ètu knigu!
‘저에게는 바로 이 책을 주세요!’

유사한 방식으로, 소위 ‘의사-환자 상황’처럼, 청자가 화자와 상호협력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정황 상, 청자 자신도 화자가 원하는 결과적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간주될 수 있을 때도 역시, 주어진 결과적 상태가 필요하다는 언급만으로도 청자가 그의 바램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므로, 화자는 예문 (10)처럼 완료상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10) **Sjad'te^{pf}** žel!
‘앉으세요!’

즉, 살펴본 바대로, Durst-Andersen의 견해는, 의무양상이 관련된 허락과 의무 부과의 화행에는 완료양상이, 진리가능양상이 관여하는 소위 가능성 진술과 필요성 진술에는 완료양상이 사용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⁷⁾ 그러나, Durst-Andersen의 이러한 견해는, 논증과정의 작위성은 차치하더라도,¹⁸⁾ 지나치게 도식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과 같은 매우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다라도 알 수 있듯이, 허락/허가의 화행에도 완료상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¹⁹⁾

(11) A: **Možno otkryt^{pf} okno?**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B-1: **Otkryvajte^{impf}, požalujsta!**

‘(얼마든지) 여세요.’

B-2: **Otkrojte^{pf}, požalujsta!**

‘여세요.’

3.2. 거리조절과 상

러시아어 명령문에서 반복이나 지속이 아닌, 일회적 행위가 표현되는 경우에는 완료상의 사용이 당연값(default)이다. 어떠한 행위를 명령, 요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가 종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완료상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은 부가적인 기능, 즉, 일종의 화행적 기능을 신호한다. 필자들은 이 기능을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심리적 거리의 조절이라고 본다.

위에 언급된 상의 이러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감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완료료상의 사용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7) 이처럼 후자 유형의 연구 역시 결국 상의 선택과 수행되는 화행의 종류와의 연관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전자 유형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8) 예를 들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협력성의 판단 여부, 청자가 감히/기꺼이 주어진 행위를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의 판단 여부, 그리고 해당발화의 일종의 기저의미에 실제로 가능성 진술, 필요성 진술 등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 인용된 예문 (11)과 관련하여, 상의 선택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조절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간략하게나마 이미 Benakk'o(1997)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Benakk'o는 명령문에서 상의 선택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완료상의 경우에 지시 및 요청의 화행이 직접적으로 행위의 결과에로만 정향되어 있는 반면에, 완료료상의 경우에는 지시 및 요청이 (결과에 선행하는) 행위의 다양한 국면, 즉, 시작이나 중간 국면으로 정향되어 있다는 “연상적” 설명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거리조절과 관련된 상의 기능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도해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12) **Vxodite^{impf}, vxodite^{impf}, ne stesnjate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구요!’

Proxodite^{impf}, razdevajtes^{impf}, sadites^{impf}!

‘들어오셔서, 외투 벗으시고, 앉으세요!’

Nu, priglašajte^{impf} (menja na tanec)!

‘그러면, (춤추는 데 나를) 초대하세요!’

Prixdite^{impf} k nam v gosti!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세요!’

Ostavajtes^{impf} eščel! ‘좀더 있다 가세요!’

Nalivajte^{impf} čaj sami! (얼마든지) 직접 차를 따라 드세요’

이처럼, 청자와의 접촉감, 친밀감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친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화자는 거리 조절과 관련된 불완료상의 기능을 이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기능의 대비는 한 모국어화자가 필자들에게 제시해주었던, 다음과 같은 편지글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13) Privet. Kak ty?

U menja vse xorošo. Načalas' učeba v universitete. Skoro svad'ba, sečas gotovimsja. Meždu pročim, počemu stol'ko ošibok v tvoem citirovanii Biblii?

Kak u vas v cerkvi? El'za Petrovna ždet ot tebjja pis'ma - **napiši^{pf}**.

Pomni vse, čto ja tebe napisal.

Poka. **Piši^{impf}**.

‘안녕. 어떻게 지내니? 나는 모든 게 다 좋아. 대학에서는 수업이 시작 됐어. 곧 결혼식이니, 지금은 준비중이야. 그건 그렇고, 네 성경인용에는 왜 그렇게 실수가 많니? 너희 교회는 어때? 엘자 페트로브나가 너한테서 편지를 기다리고 있으니, 편지해라. 내가 너한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해. 안녕. 편지해.’

즉, 불완료상 **piši**가 사용된 마지막 발화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친교적 기능이 두드러져 있다(잘 알려져 있듯이, 편지글에서는 장르의 속성 상, 특히 서두와 말미 부분에 소위 액자구조의 형태로 청자와의 접촉감, 친밀감을 잘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 사용된 완료상 **napiši**에는 외연-정보전달적 기능이 두드러져 있는 반면,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어휘가 반복되는 경우 정보전달적 기능이 감소되면서 완료상이 불완료상에 의해 대체된다.

이를 의무양상 및 진리가능양상의 표현과 관련된 상의 기능을 강조하는 Durst-Andersen(1995, pp. 642-647)의 견해와 비교해 보자.

(14-a) **Voz'mi^{pf}, voz'mi^{pf}!**

‘가져 가, 가져 가!’

(14-b) **Beri^{impf}, beri^{impf}!**

‘가져 가, 가져 가!’

Durst-Andersen은 위의 발화가 만약 청자가 계속 화자의 담배를 피워대 화자가 조금은 화가 난 상태인데도, 청자가 다시 허락도 없이 또 한 개비를 꺼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청자를 책망하여 타인들 앞에서 청자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는 담화맥락과 관련될 때는, 문법적으로는 비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료상 *beri*가 사용된 (14-b)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위의 담화상황에서 불완료상이 사용된 (14-b)가 선호되는 것은 허가없이 반복적으로 남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같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함이 부각되어 있는 (혹은 강요되는) 상황에서, 화자는 이에 상응하게 청자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불완료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불완료상은 담화상황에 따라 화자의 혼쾌한 등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도, 혹은 유머러스한 책망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

Durst-Andersen의 주장과는 달리 이 상황에서 완료상의 사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화자가 좀더 냉정하게 자신의 언짢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청자에 대하여 거리두기의 전략을 사용하여, 완료상 *voz'mi*가 사용된 아래의 예문 (14-c)처럼 발화할 수도 있다.

(14-c) **Voz'mi^{pf}!**

‘가져 가!’

(14-c)가 가능하긴 하지만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화자의 화행이 청자에게 공격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Durst-Andersen의 진리가능양상이라는 개념 틀에 의해서는 (14-c)의 화자가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언짢음을 표현할 수 있거나, 해당 발화가 잠재적 공격성의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도해내기 힘들다.

완료상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14-a)가 어색한 이유 역시, 상의 거리 조절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Yokoyama(1994, pp. 95-96)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한 발화 내에서 반복적 표현의 사용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며,²⁰⁾ 바로 이러한 요인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완료상의 반복적 사용을 제어하게 된다.²¹⁾

20) Yokoyama(1994)는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하여) 한 발화 내의 반복 이외에도, 음운적 축약, 통사적 생략 등의 변수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 조절에 (언어기호의 도상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상의 거리조절 기능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은 거리조절 기능이 관여하는 화용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불완료상은 거리의 최소화 기능으로 인해 청자에 대한 친밀함 뿐만 아니라, (이 거리의 최소화가 청자의 동의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은 지나치게 최소화될 때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데서 생겨나는 무례함 혹은 (화자가 청자에 비해 사회적,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는) 거칠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²²⁾ 완료상 역시 적절한 거리의 유지 및 확대 기능으로 인해 청자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돕지만, 동시에 (이 거리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는) 청자에 대해 공격성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²³⁾

예컨대, 아래의 예문 (15-a)와 (15-b)를 통해 거리 조절과 관련된 상의 기능을 살펴보자.

(15-a) **Sadites**^{impf!}

‘앉으세요!’

(15-b) **Sjad'te**^{pf!} (**vojdite**^{pf!}, **sjad'te**^{pf!}, **razden'tes**^{pf!})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옷을 벗으세요!)

대체적으로 청자로 하여금 청자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제안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접촉감을 강조하는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 두드러진 담화서두 (discourse-initial)의 위치에서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15-a)의 발화처럼 불완료상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의 유지가 강조되는 담화상황에서는 (15-b)처럼 완료상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 관계가 강조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15-b) 역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15-b)는 화자가 특별히 청자와의 거리감을 강조하고자 하는 화용적 동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청자에 대해서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와 충분히 친한 관계에 있는 화자가, 청자의 일 처리와 관련하여 뭔가 만족하지 못하여 특별히 거리감의 신호를 전달하고자 할 때도 (15-b)가 사용될 수 있다.

친밀함을 표현하는 경우에 불완료상이 사용되는 이유는 완료상이 가지는 종결성을 불완료상이 약화시킴으로써, 명령문이 가지는 청자에 대한 강요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21) 이와 유사한 지적에 대해서는 Benakk'o(1997, pp. 12-13)를 보라.

22) 바로 이 점에서, 명령문에서의 불완료상의 사용이 가지는 격식없음(besceremnost')의 효과가 설명될 수 있다.

23)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지적하자면,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한국어 예문에서도 병행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요청의 연표내적 힘을 강화시키는 어미 “-psio”가 사용된 “책 좀 전해주시시오”와 같은 발화는 청자와의 적절한 거리의 유지에 바탕을 둔 “형식성”의 위양스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공격성”의 위양스까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연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어미 “-지”가 사용된 “책 좀 전해주시지요”와 같은 발화 역시 친밀함의 위양스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무례함의 위양스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책 좀 전해주시겠습니까?”와 같은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것이다.

(16-a) **Pokažite^{pf}** dokumenty! ‘서류를 보여주세요!’

(16-b) **Pokazyvajte^{impf}** dokumenty! ‘서류를 보여주세요!’

(17) **³Pred"javljajte^{impf}** dokumenty! ‘서류를 제시해주세요요!’

Padučeva(1996, p. 77)도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예문 (16-a)와 (16-b)는 동등한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다 공식적 레지스터에서 사용되는 어휘소 pred"javit'/pred"javljat(‘제시하다’)의 불완료상 형태가 사용된 예문 (17)는 (해당 발화가 한 사람에게 대해서 발화될 때는) 상당히 어색한 발화가 된다. 이는 사용된 어휘의 레지스터적 특성과 불완료상의 거리 조절 기능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 비현실적 조건문과 명령문을 대상으로, 상과 양상범주의 상관관계가 갖는 화용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현실적 조건문은 비사실적 혹은 반사실적 텍스트에 속함에도 (통상적으로 사실적 텍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한다고 간주되는) 인과성이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완료상이 선호된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화자의 책임 감면 혹은 청자에 대한 예의 갖추기 등의 목적을 위하여 화자는 조건절과 주절간의 인과성에 대한 단언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완료상을 불완료상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명령문의 경우에도 불완료상으로의 대치는 종결에 대한 단언성의 약화를 통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며, 이로 인해 많은 경우 친밀함과 예절바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두 문장유형 모두에서 상의 조작성 (비록 다소 차이나는 경로를 통해서이기는 하나) 결국 발화가 가지는 단언성의 강도조절이라는 동일한 효과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유표적 양상을 보이는 두 구문 모두에서 완료상을 대체하는 불완료상은 화자의 화용적 목적을 위한 단언성 약화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의 양상적 기능이 명령문과 조건문 뿐 아니라 평서문, 의문문 등의 다른 문장유형에도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이인영. (1985). 현대러시아어 相(aspect)의 담화기능 - 배경이론에 대한 再考. 어학연구 21(3), 309-330.
 이인영. (1997). 러시아어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 Argumenty i fakty*. (2002). Moskva.
- Auwers, J. V. (1986). Conditionals and speech acts.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pp. 197-2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akk'o. R. (1997). Vyraženie vežlivosti formami povelitel'nogo naklonenija nesoveršennogo i soveršennogo vida v russkom jazyke. In M. Ju. Čertkova, ed., *Trudy Aspektologičeskogo Seminara Filologičeskogo Fakul'teta MGU im. M. V. Lomonosova*, tom III (pp. 6-17) Izdatel'stvo Moskovskogo universiteta.
- Bondarko, A. B. (1971). *Vid i Vremja Russkogo Glagola*. Moskva: Prosveščenie.
- Brown, P. and S.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cygier, B. (1998). *Conditionals and Prediction: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in Conditional Constru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rst-Andersen, Per. (1992). *Mental Grammar: Russian Aspect and Related Issues*.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 Durst-Andersen, Per. (1995). Imperative frames and modality: Direct vs. indirect speech acts in Russian, Danish, and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 611-653.
- Durst-Andersen, Per. (1997). Soveršennyj i nesoveršennyj vidy russkogo glagola s pozicii mental'noj grammatiki. Semantika. Pragmatika, In M. Ju. Čertkova, ed., *Trudy Aspektologičeskogo Seminara Filologičeskogo Fakul'teta MGU im. M. V. Lomonosova*, tom I (pp. 71-90). Izd. Moskovskogo universiteta.
- Ferguson, C. A., Traugott E. C., Reilly, J. S., ter Meulen, A. and E. C. Traugott. (1986). Overview. In Traugott et al. *On Conditionals* (pp. 3-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syth, J. (1970). *A Grammar of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ischman, S. (1995). Imperfective and Irrealis. in Bybee and S. Fleischman,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pp. 519-55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alton, H. E. (1976). *The Main Function of the Slavic Verbal Aspect*. Skopje.
- Haiman, J. (1986). Constraints on the form and meaning of the protasis.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pp. 215-2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sman, S. P. (1986). Aspect use in the imperative: An alternative view.

Russian Language Journal 135, 25-32.

- Hopper, P. J. (1982). Aspect between discourse and grammar: An introductory essay for the volume. In P. J. Hopper, ed.,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pp. 3-18).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Isačenko, A. V. (1968). *Die Russische Sprache der Gegenwart*. Teil I: Formenlehre. Halle: Verb Max Niemeyer Verlag.
- James, D. (1982). Past Tense and Hypothetical. *Studies in Language* VI, 375-403.
- Johnson-Laird, P. N. (1986). Conditionals and mental models. In Traugott et al. eds., *On Conditionals* (pp 55-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hmann V. (1989). Pragmatic functions of aspects and their cognitive motivation: Russian aspects in the context of the imperative and the infinitive. In L. G. Larsson, ed., *Proceedings of the Second Scandinavian Symposium on Aspectology* (pp. 77-88). Uppsala: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 Lomov, A. M. (1975). Kategorija glagol'nogo vida I eijo vzaimootnošenija s kontekstom. *Voprosy Jazykoznanija* 6, 55-64.
- Lunt, H. G. (1974). *Old Church Slavonic Grammar*. Paris: Mouton.
- Marinina, A. (1999) *Sed'maja žertva*. Moskva: Eksimo- Press.
- Marinina, A. (2001) *Illjuzija Grexa*. Moskva: Eksimo-Press.
- Padučeva, E. V. (1992). Semantika i pragmatika nesoveršennoogo vida imperativa. In *Rusistika Segodnja. Funkcionirovanie Jazyka: Leksika i Grammatika* (pp. 36-55). Moskva: Nauka.
- Padučeva, E. V. (1996). *Semantičeskie Issledovanija*. Moskva: Škola <Jazyki ruskoj kul'tury>.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stan, Per. (1989). Daval = Dal by: Some remarks on mood, tense and aspect. In L. Larsson, ed., *Proceedings of the Second Scandinavian Symposium on Aspectology* (pp. 89-94). Uppsala: Almqvist & Wiksell.
- Searle, J. R. (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23.
- Švedova, L. N. (1982). *Russkaja Grammatika* 2 Toma. Moskva: Nauka.
- Thelin, N. B. ed. (1990). *Verbal Aspect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Traugott E. C. (1985). Conditional markers. In J. Haiman, ed., *Iconicity in Syntax* (pp. 289-310). Amsterdam: John Benjamins.
- Xrakovskij, V. S. (1988). Imperativnye formy NSV i SV v russkom jazyke i ix upotreblenie. *Russian Linguistics* 12(3), 269-292.
- Xrakovskij, V. S. (1996). *Teorija Funkcional'noj Grammatiki: Lokativnost', Bytiinost', Possessivnost', Obuslovlennost'*. Sankt-Peterburg: Nauka.
- Yokoyama, O. (1994). Iconic manifestation of interlocuter distance in Russian. *Journal of Pragmatics* 22, 83-102.

이인영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전자우편 : iylee@snu.ac.kr

김정일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전자우편 : jungil-kim@hanmail.net

홍택규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전자우편 : jakob@hanmail.net

접수일자 : 2002. 6. 1

수정본 접수 : 2002. 7. 23

게재결정 : 2002. 8. 24